

IFES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28호(1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 연구활동	14
3. IFES 브리프 및 포럼	17
4. Fellowship 사업	19
5. 북한 · 국제 정세 동향	21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8
2. 언론 속의 IFES	29
3. IFES 도서관	32
4. 안내사항	33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 연구활동

IFES 브리프 및 포럼

Fellowship 사업

북한 · 국제 정세 동향



1. 학술활동

가. 제13차 삼청포럼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2월 10일 오후 7시 통일관 정산홀에서 제13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의 싱크탱크 스티imson센터(Stimson Center) 선임연구원인 제니 타운(Jenny Town) 38노스(38 North) 디렉터를 초청,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Landscape around North Korea)”에 관한 주제로 발표 토론을 가졌다.

제니 타운 ‘38노스’ 디렉터는 포럼에서 “북한은 다극체제 형성과 서방의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와 군사기술 지원을 확보하면서도, 스스로를 ‘정상국가’로 포장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과 중·러 협력 강화로 인해 국제정치가 블록 형성과 군비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변화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북한의 ‘핵 보유 지위’가 미국과 서방 주도의 역내 안보 블록과의 대립에서 유용하게 작동하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김정은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정세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정은은 기존 통일 담론을 삭제하고 영구적 국가로서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과 군사력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를 법제화 하는 한편, ‘적’ 개념을 과장함으로써 극단적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관측 된다”고 설명했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대학생 및 전문가들과의 현 국제정세 변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나. 제74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2월 18일(수) 오후 2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를 주제로 ‘제74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5개 소주제로 나누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변화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제1주제 ‘트럼프의 집권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망’은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흥규 소장은 트럼프는 디커플링, 관세, 군사 분야 등 대중 압박에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추구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시간벌기 전략을 추진할 것이니 한국은 유연하고 실용적 생존전략을 구상해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이 EU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이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이므로 한국 또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 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트럼프의 집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은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박노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성훈 교수는 트럼프의 전쟁 해결 기본 원칙을 ‘협상에 의한 전쟁 중단’이라고 분석하며, 미국이 전선 동결과 비무장지대 조성,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연기 또는 포기를 대가로 안전보장 제공 또는 중립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박노벽 초빙교수는 미국의 종전 추구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기 어려워 포괄적 평화협정보다는 군사적 휴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제3주제 ‘트럼프의 대북접근과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고유환 명예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북러밀착이 약화 되어야만 북미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미국이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협상을 낙관할 수 없다며, 한국이 관여할 공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된 이상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4주제 ‘트럼프의 동맹정책과 한미 동맹의 변화 전망’은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세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와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한국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농축·재처리 권한, 잠수함 건조권, 방산 협력 등 실익을 챙기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재욱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라는 전술적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략적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분담금 요구의 수용보다는 국방비를 늘리는 형태의 대안을 제시했다.

제5주제 ‘트럼프의 등장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은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주제 발표와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병철 교수는 핵무장 경로 옵션 중에 가능한 것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미국과 공정한 타협을 이루어 내는 점진적 헤징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이성훈 책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이 장기간 힘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트럼프와는 별개로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전략포럼을 주최한 이관세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철저한 상황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

였다”며, “내년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및 외교 추진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제74차 통일전략포럼 주요내용 >

■ 1세션: 트럼프 집권과 미중 전략경쟁

○ 미국 트럼프의 대외정책

- 외교정책: 미국 우선주의 강화, 국제문제 개입 자제
- 북핵정책: 북한 핵무기 불용 원칙, 동시에 용인 가능성, 핵 군축 추진 가능
- 한미동맹: 거래적 관점,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요구 강화
- 중러정책: 러-우 전쟁 조기 종결, 러시아 우호, 대중 압박, 중국 최혜국 대우 철폐
- 국제분쟁: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해결 의지
- 경제정책: 보호무역주의, 리쇼어링, 미국 중심 핵심 공급망 구축(IRA, Chips 개정)

○ 중국 시진핑 시기 대외정책

- 향후 중국 외교에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주요 요소: ①미·중 전략경쟁, ②반세계화 추세, ③디지털 경제발전
- 대북정책: 대북 보복 조치와 압박 강화 유지(사치품 통관 차단, 사이버 부대 추방, 비자금 활동 차단)
- 대남정책: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균형 정책 추진
- 중국 내부 평가, 2035년경 미·중 간 경제 규모 전이 전망

■ 2세션: 트럼프의 집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

- 러-우 전쟁 원인: 미국·러시아 강대국의 세계질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 탈냉전기 미국의 NATO 확대 전략과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전략의 충돌
- 트럼프 당선인의 해결안: 현재 전선 동결, 비무장지대(1,300km) 조성 합의, 우크라이나 중무장, 우크라이나 외 지역 독립 주권 보장

○ 각국의 입장 대치

- (러시아) 러시아 병합 4개 지역 우크라이나 군 철수, NATO 가입 포기 공식 통보
- (우크라이나) NATO 가입 초청, 미국의 확실한 안전보장
- (협상 전망) 미국은 우크라이나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 강화, 러시아의 전제조건 수용하며 협상 시작. 또는 우크라이나 배제 후 미·러가 직접 유럽 안보 질서에 대한 협상 나서는 경우
- (러·북 군사협력 전망) 러·북 상호 운용성 강화, 유라시아 동쪽 안보 및 한반도 전략 균형 확보. 러·우 전쟁 종결 시에도 미국 패권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강화 전망

■ 3세션: 트럼프의 대북접근과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협상 구도

- 트럼프 1기 북미대결 구도 중심, 트럼프 2기는 서방 대 반서방으로 대결 구도 확장
- 미국 규칙기반질서(RBO) 수립 포기, 세력균형에서 이익균형으로 정책 전환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포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미협상 가능성 존재

○ 트럼프 1기와 다른 변수 전망

- 미·북 협상 시 북한의 적대시 정책으로 한국을 배제한 미국 직접 협상 가능성
- 러·북 밀착 지속 시 북한의 대미 전략 변화 예상
- 미북 협상 추진 시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혹은 직접 협상 추진 가능성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엄격히 감시받는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 허용 방안 언급

■ 4세션: 트럼프의 동맹정책과 한미동맹의 변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방식은 동맹관계에서도 미국 무역적자를 만회할 방안 강구
- 미국 중심의 세계적 리더십 재확보 노력
- 보수적 민족주의(보수적 개입주의, 보수적 비개입주의, 강경한 일방주의) 성격

○ 한국의 대응방향

-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 입장 국가들과 네트워크 확대, 중견국 연대 활용
- 트럼프 진영에 가감 없이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도록 노력
- 행정부와 별개로 대 의회 외교 강화 필요
- 국무부, 국방부 등 동맹과 외교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업체제 중요

■ 5세션: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핵무장 담론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 한국의 핵무장 담론 변화

-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물음에 국민 대다수 의견 회의적
-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연계
-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임.

○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헤징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 미국의 대북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한국의 동의 필요
- 트럼프의 제재 완화 시도 시, 안보리 거부권 행사, 반대급부 요구 등 대응책 마련

다. 학술지(국·영문) 발간

1) 『ASIAN PERSPECTIVE』 Vol. 48, No. 4, FALL 2024 (2024. 12. 1.)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8년 학술진흥재단(現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존스 홉킨스대 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존스 홉킨스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고 Project Muse (<https://muse.jhu.edu/issue/53752>)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Asian Perspective' 제48권 4호(2024년 가을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과 중국의 전기차 시장 협력; 중국 대중이 바라보는 중미 관계와 강대국 관계에 대한 논쟁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 베트남과 중국의 역사적 외교 관계의 이중성;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남중국해' 정책, 지속보다는 변화가 일본의 안보 정책 전통을 형성하는 방식; 최근 북한의 대남 및 통일 정책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널의 'Book Symposium'섹션에서는 초청된 학자들이 수밋 강글리, 만짓 S. 파데시, 윌리엄 R. 톰슨의 『중국-인도 라이벌』: 전략적 경쟁으로서의 중국-인도 경쟁의 역사를 추적하는 기념비적인 책(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의 서평이 게재 되어 있다.

과거 특별호를 포함한 본지의 모든 호(1977년부터 2024년까지)는 Project Muse(<https://muse.jhu.edu/journal/7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ASIAN PERSPECTIVE』 (VoL. 48, No. 4, FALL 목차)

China and Gulf Council States

Electric Vehicle Market: 525

A New Arena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Gulf

Cooperation Council States

Mordechai Chaziz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Living with the Global Hegemon: 549

How the Chinese Public Views the United States

Yida Zhai

US-China Relations in Retrospect: 575

Revisiting the Debate of Realists, Liberals, and Constructivists

Brian C.H. Fong

Vietnam-China Relations

Dualism in Vietnam-China Relations: 599

Vietnam's Diplomatic Interactions with Chinese Envoys from the 10th to the 19th Century

Nguyen Thi My Hanh

Security Policy in Asia

Role and Threat: 621

An Assessment of Australia's South China Sea Policy Amid Great Power Rivalry

Shuqi Wang

Why Change Prevails over Continuity? Critical Junctures, Motivations, Cognitions, and Temporals in Japanese Security Policy Tradition 647

Sam-Sang Jo

The Two Koreas

Why Did Kim Jong-un Delete Unification? 671

Issue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Position on 'Hostile Relations Between Two States'

Kap-sik Kim

BOOK SYMPOSIUM

Book Symposium on Sumit Ganguly, Manjeet S. Pardesi, 697

and William R. Thompson. 2023. *The Sino-Indian Rivalry: Implications for the Global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6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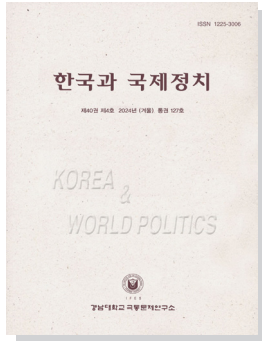
Manoj Joshi

Jingdong Yuan

Mahesh Shankar

Sumit Ganguly, Manjeet S. Pardesi, and William R. Thompson

2)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제4호 2024년 (겨울) 통권 127호 (2024. 12. 31.)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40권 제4호, 2024년 (겨울) 통권 127호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 차>

-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망
 - 류인석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 신냉전과 한반도 적대의 시대: '적대적 두 국가론' vs. '8.15 통일독트린'
 - 강혜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근미래무기'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 간 동학(動學)에 관한 연구
 -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조선인민군 군사칭호에 관한 연구: 1948년 창설부터 한국전쟁 및 1955년까지
 - 이성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우교수; 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연구교수)
- 장제스의 한국전쟁 참전 시도와 미국과 한국, 중국의 전략적 판단
 - 박은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 영토분쟁의 정치화와 ICJ: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을 중심으로
 - 문용일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한국과 국제정치』 2024년 (겨울) 통권 127호 주요 내용

류인석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계획된 증원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의 개입 의지와 능력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여 증원의 규모와 양상을 전망했다.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분쟁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반도 단일전쟁일 경우 대규모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혜석 교수는 2023년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공식화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동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공식화된 남한의 ‘8.15 통일독트린’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매우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는 한편 ‘8.15 통일독트린’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병철 교수는 ‘근미래무기’ 확산의 주요 동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의 핵 비확산과 관련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2009~2017) 동안 미국이 어떠한 군사전략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상하게 되었는가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2017~2021)에 등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또한 핵무기 위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방지할 정책적 함의도 제시했다.

이성춘 교수는 조선인민군 군관의 군사칭호는 1952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최초 창설 당시에는 계급을 사용하지 않고 군사직위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선인민군의 군사직위 제도는 1952년까지 사용되었으며, 1952년 12월 31일에 정령을 통해 군사칭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북한 1차 자료 및 중국군 자료를 통하여 입증했다. 현재 군사직위와 군사칭호에 대한 혼란 부분에 대하여 정부 간행물 및 각종 공식문서 발간 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은경 박사는 장제스는 대만군의 군사적 가치를 부각시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끌어내고자 하였으나, 그의 야망은 국제사회의 신중한 접근과 대만군의 군사적 한계, 그리고 냉전 구도 속에서 얽히고설킨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미국은 한국전쟁 내내 대만군 활용보다는 한반도에서의 ‘제한전’을 고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반공대륙으로 대표되는 장제스의 확전론은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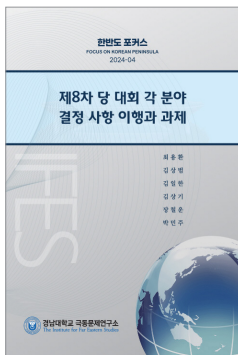
문용일 교수는 2008년 이후 재점화된 태국과 캄보디아 간 프레이 비히어 사원 분쟁이 ICJ 판결을 통해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영토분쟁 연구에 있어서 분쟁의 동학 연구의 필요성 및 ICJ의 영토분쟁 판결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 연구서 발간: 한반도 포커스 2종, 한반도 리포트

한반도포커스
2024-04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사항 이행과 과제

2024. 12. 9. 최용환, 김상범, 김일한, 김상기, 장철운, 박민주



하노이 노딜의 충격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1년 정도가 더 지나면 북한은 제9차 당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얼마나 성취하였을까?

종합적으로 보자면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은 대외·대남·군사 부분의 변화가 두드러진 가운데,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른바 정비·보강에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9차 당 대회 이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외적 측면에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부 및 러북 밀착의 파급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 강화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부문의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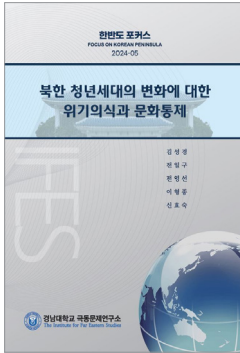
<목 차>

-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 상황 평가 및 향후 전망
 -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8차 당 대회 정치 분야 결정사항과 이후 집행 평가 및 전망
 -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제8차 당 대회 이후 경제분야 이행과 과제
 - 김일한(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외교: 현황과 분석, 평가
 - 김상기(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군사분야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 장철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제8차 당 대회 사회문화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 박민주(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

한반도포커스
2024-05

북한 청년세대의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문화통제

2024. 12. 20. 김성경, 전일구, 전영선, 이형종, 신호숙



북한 청년세대의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중요한 화두였다. 주요 노동력이자 군대의 자원,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의 북한의 청년세대에게서 사상의식 이완과 한류에 대한 모방, 유행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세대를 결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화된 장마당을 경험한 청년들이 기성세대와는 구별될 수 있는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 책은 북한 당국이 청년세대의 문화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 의도와 효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북한 청년세대 변화의 특성과 그 의미를 짚어본다.

사회주의문화와 외래문화, 국가와 시장,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 이중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는 북한 청년세대가 점차 북한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 체제의 변혁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와 바람이 투영되어 그들의 영향력과 변화가능성을 과잉해석하거나 낙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목 차>

-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 이후의 청년들: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과 불확정성이라는 가능성
-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교수)
- 북한의 청년 대상 메시지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부정적 인식 형성과 통제
- 전일구(연세대 통일학 박사)
- 북한의 청년에 대한 고민과 문화통제
-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김정은 정권 문화통제의 심리적 효과
- 이형종(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그 함의
- 신호숙(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반도
리포트

2024-2025년

2024. 12. 24. 정재욱, 이상만, 조진구, 이문영, 이병철, 최은석, 김상범, 임을출, 이형중



2024년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핵심 이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미국의 중국·러시아와 갈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북-러 포괄적 동반자 조약과 북한의 '적대적 두개 국가' 선언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2024년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전망과 대응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리포트를 발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신국제질서 구상, 미중경쟁과 미일동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과 전망,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와 러시아 파병, 김정은 지배체제의 공고화 전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과 분석을 제시하였다.

〈목 차〉

1.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 정재욱(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 미국 대선 후 한반도 주변질서의 재편: 중국 20기 3중전회를 중심으로
 -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3. 미일동맹과 중층적 다자안보협력
 -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4. 20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결산과 전망
 -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5. 『김정은 정권』 핵 고도화와 역내 안정성의 동학에 관한 연구
 -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6. 북한식 사회주의질서 강화를 위한 기본3법 제정과 사회통제
 - 최은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7. 2024년도 북한 정치 분야의 변화 평가 및 전망: '김정은 조선, 김정은 인민' 만들기
 -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8. 2024년 북러 간 경제·사회교류협력 전개, 특징과 전망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9. 북한군 파병과 주민의 의식변화
 - 이형중(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 교수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 1) 북한연구학회 주최 2024 동계학술회의 주제 발표
- 일자/장소: 2024. 12. 6.(금) / 동국대 사회과학관 M302호
- 내용: 북한 시기술개발 실태와 미래 자율제조 분야 협력
- 2)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제27회 통일법 포럼 지정 토론
- 일자/장소: 2024. 12. 19.(목) / 서머셋팰리스 서울 세미나룸
- 내용: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법과 경제안보

조진구 교수

- 1) 한일의원연맹 주최 한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회
- 일자/장소: 2024. 12. 5.(목) / 국회 의원회관
- 내용: “65체제 60년의 성과와 과제: 바람직한 이웃나라의 길을 찾다”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38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
- 일자/장소: 2024. 12. 10.(화) /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
- 내용: “변화하는 통일 환경, 평가와 과제”

김상범 교수

- 1) 통일연구원 과제 종합 토론
- 일자/장소: 2024. 12. 5.(목) / 통일연구원 회의실
- 내용: “김정은 정권의 대남, 통일전략 연구”

이수연 교수

- 1) OECD 주최 'OECD 지속가능 투자' 워크숍 발표
- 일자/장소: 2024. 11. 22.(금) / 태국 방콕
- 내용: 한국 NCP 및 한국의 OECD 가입 경험(OECD Guidelines for MNEs on RBC: South Korea's Experiences)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매일경제 MKGC(주한 외국 상사단의 모임) 특강
 - 일자/장소: 2024. 12. 10.(화) / 매일경제 본사 12층
 - 내용: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안보, 경제 추진 방안
- 2) 한반도 포럼 토론
 - 일자/장소: 2024. 12. 11.(수) / HSBC 빌딩 15층 회의실
 - 내용: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관련 원칙에 입각한 대응 중요성 강조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이언주-김병주-위성락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 좌장
 - 일자/장소: 2024. 12. 18.(수) /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 내용: 트럼프 2.0 시대: 한미동맹 및 통상전략 모색

최영준 초빙교수

- 1) 국회 이인영 의원실 정책토론회 발표
 - 일자: 2024. 12. 19.(목)
 - 내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핵 문제 전개 전망

2. 교수 연구활동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 1) KBS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출연 (2024. 11. 30. 토)
- 내용: 초코파이부터 BTS까지... K콘텐츠에 빠진 북한
- 2) 아리랑TV 저녁 뉴스 인터뷰 (2024. 12. 5. 목)
- 내용: N. Korea-Russia treaty takes effect Wed.; Pyongyang silent on martial law declaration
- 3) KBS 열린 토론 출연 (2024. 12. 19. 목)
- 내용: 불확실성 커진 한반도... 안보 지형은?

조진구 교수

- 1) KBS 라디오 '뉴스레터K' 출연 (2024. 12. 2. 월)
- 내용: 사도광산 추모식 논란 속 한일관계는?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2024. 12. 23. 월)
- 내용: "국난극복의 DNA"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내일신문 기고 (2024. 12. 5. 목)
- 내용: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 2) '법치와 자유' 기고 (2024. 12월 계간)
- 내용: 트럼프의 재등장과 한국
- 3) '현정' 기고 (2024. 12월 월간)
- 내용: 세계인물평전 "헨리 A. 키신저"

3. IFES 브리프 및 포럼

가. IFES 브리프 (2건)

IFES브리프(요약)

트럼프 시대 한미 간 동맹 현안 논의

(2024. 12. 26.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前국립외교원장)

트럼프 2기 시대에 논의할 한미간 외교안보 분야 의제가 4개 있다. 1기부터 제기된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북핵문제가 있고,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우호적 핵무장론”이 있다.

(방위비 분담) 금년 10월 양국 정부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으나,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트럼프의 요구를 ‘핵수 인상’보다 한반도 방위의 ‘실질적 책임 분담’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때로 유연한 태도를 보인 적도 있으나, 북한 핵 문제와 맞물려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미국이 취할 ‘군사 분야 조치’의 하나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정치 공약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3대 의제의 하나인 “세계경찰 역할 중단”과 “세계적 해외 미군 감축 노력”의 일부로 나오는 것인 만큼, 국내 지지자들을 의식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단, 이렇게 하려면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한 부담은 있다.

(북한 핵문제) 트럼프 취임 후 북미대화 재개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핵 문제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의 북핵 역량 강화와 북러동맹조약 체결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진행될 것이다. 북한은 2019년보다 한 걸음 나아가 “군사 분야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현실을 반영”하여 비핵화의 목표를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우호적 핵무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기되는 “우호적 핵무장론”에 주목한다. 북한 핵 역량 강화에 따라, 미국은 “연루(entrapment)” 부담을, 한국은 “방기(abandonment)” 부담을 느껴야 하는 딜레마가 있으며, 또한 현재와 같은 억지 전략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안보딜레마”가 있다. 이러한 이중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소규모 핵무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재래전력과 미국 핵우산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상정한다. 1950-60년대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자 핵무장으로 나가고 미국은 대량 보복에서 신축 대응으로 핵전략을 전환한 사례와 유사하다.

(향후 동맹 현안 논의) 4개 동맹 현안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 즉 역할 전환의 맥락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북한 핵 문제와 “우호적 핵무장론”은 북한 위협 평가와 분리할 수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 트럼프 4년 임기 중에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를 포함하여 역할 전환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며, 한미 간 연루와 방기 딜레마 해소 방안도 조기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브리프 전문 내용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IFES브리프(요약)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경제분야 평가와 전망

(2024. 12. 30.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개요) 2024년 성과를 총화하고 2025년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가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강령적인 결론'을 연설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당·국가정책 집행에 대한 총화(평가)를 바탕으로 ▶내년(2025년)도 지방발전정책 ▶교육 토대 강화 조치 ▶내년도 예산안 ▶당 내 기구 사업 ▶조직 등 주로 대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평가) 이번 전원회의는 2024년의 성과를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2025년을 체제 강화와 경제적 도약의 해로 만들려는 북한의 의도를 과시하고, 북한은 2024년 주요 산업 분야에서 생산 목표 초과 달성(예: 압연강재 127%, 알곡 107% 등)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 부문에서 수도와 지방 주택 건설, 농촌 복구 사업 등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자립 경제 기반 강화와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대한 강조가 단순한 경제적 접근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농업 및 기간산업 강화를 통해 자급자족 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북 제재 상황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했다는 점을 부각 시켰다. 특히 경제분야 내용은 과학기술 및 교육발전과 지방발전 중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경제정책 전망) 2025년은 당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분야 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특히 당의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간주되고, 최우선적인 혁명사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 도출에 최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2025년에도 금속, 화학, 전력, 기계 등 기간산업에서의 발전 지속. 건설 사업(평양 5만 세대 완공, 검덕지구 주택 건설 등) 확대, 농업 생산 증가 및 과학 농업 도입을 통해 식량 자급 자족 체계 구축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경제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개선 과제들로서 재해 예방 체계 구축 및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교육 및 보건 시스템 개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이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경제적 성과 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 브리프 전문 내용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나. IFES 포럼 (2건)

- 제목: How can we work with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12.30, 안호영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
- 제목: A New Year's Message to DPRK Chairman Kim Jong U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tributes to the Security Guarante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DPRK(12.30. 곽태환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포럼 전문 내용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4. Fellowship 사업

연구소는 Fellowship 사업 관련 12월중 활동으로 △펠로 최종 발표회 및 수료식 △해외 북한 통일학 사후관리 기반조성 및 세미나 개최 △5개년 사업 평가회 등을 실시했다.

가. 펠로 최종 발표회

- 일시/장소: 2024. 12. 2.(월) 10:00 / 평화관 1층 대회의실
- 발표자: 펠로 1명(일본 미야모토 사토루)
- 참석자: 김상범 주임교수, 실무진
- 주요내용: “북한과 양골라 내전”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 이후 연구소 주임 교수의 다양한 코멘트를 반영하여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나. 펠로 수료식

- 일시/장소: 2024. 12. 27.(금) 11:00 / 소장실
- 수료자: 펠로 1명(일본 미야모토 사토루)
- 참석자: 이관세 소장, 김상범 주임교수, 실무진
- 주요내용: 이관세 소장은 6개월 동안 통일 북한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 것에 대해 격려하며, 향후에도 통일 북한문제 전문가로 많은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

4. Fellowship 사업



< 펠로 최종 발표회 >



< 펠로 수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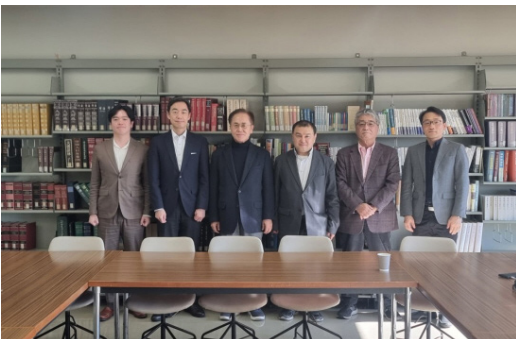
다. 해외·북한 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사후관리 기반조성 및 세미나

1) 일본 세미나

- 기간/장소: 2024. 12. 6.(금) ~ 12. 8.(일) / 일본 도쿄(게이오대)
- 참석자: 이관세 소장, 펠로 및 수료자, 해외학술 참여자, 실무진
- 주요내용: ‘한반도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주제로 펠로우 세미나 개최와 ‘해외·북한 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일본 펠로 사후관리 및 일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주제로 폭넓게 논의

2) 중국 세미나

- 기간/장소: 2024. 12. 10.(화) 10:00~12:00/ 평화관 1층 대회의실 (ZOOM 병행)
- 참석자: 이관세 소장, 김상범 주임교수, 펠로 수료자, 해외학술 참여자, 실무진
* ZOOM을 통해 중국 현지 펠로우 세미나 개최
- 주요내용: 해외·북한 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사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국 펠로 세미나를 “2024년 한반도 정세 평가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실시



< 일본 세미나 >



< 중국 세미나 >

라. 해외·북한 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5개년 사업평가 보고회

- 일시/장소: 2024. 12. 20.(금) 12:00~14:00 / 평화관 B1 라운지
- 참석자: 이관세 소장, 김상범 주임교수, 펠로, 펠로 수료자, 석 박사 학위과정 교수 및 학생, 소내 교수진, 사업 유관 전문가, 실무진
- 주요내용: 5개년 사업평가 보고회를 통해 5개년 사업 경과보고, 학생 대표자 소감발표, 사업 참가자 간 상호의견교환 등으로 펠로십 수료자 및 석 박사 학위과정생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사후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계기 마련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내용 >

■ 개요

- 2024.12.23.~12.27. 개최(5일간): 정치·경제·문화·국방·외교 부문 2024년 당·국가 사업 총화, '5개년계획' 성과적 완결을 위한 2025년 사업 발전 방향 및 과업 제시
- 7개의 의정 논의, 3개 결정서 채택*
 - ① 2024년 당 및 국가정책 총화와 2024년 사업 방향* ②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 사업정형
 - ③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과 향후 과업* ④ 교육토대 강화 조치* ⑤ 2024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 예산안 ⑥ 당내 기구 사업 ⑦ 조직 문제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 국방 부문

- 인민군대: 대적의식·주적관 철저한 결전의지 제고 위한 사상사업 공세화, 현대전 요구와 양상에 맞게 군 전쟁 수행능력 끊임없이 제고, 민방위부문 전쟁준비 계속 추진
- 국방과학 및 군수공업: 국방과학 및 군수 공업부문 활약 강조,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를 담보할 전략 기술적 방침·과업 제시

■ 대외 부문

-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 천명: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 뿔력으로 팽창”,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략”
- 국위선양, 국익수호 원칙, ‘친선적·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 과업 제시

■ 대내(정치) 부문

- ‘인민대중 제일주의’ 강조: 수재민 평양 체류 지원, 학생 수업 보장 등 ‘중대조치’는 “당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공고히 하는 소중한 결과”
- ‘새로운 지방 발전정책’ 의정 제기: 지방 공업공장 건설(지방발전 20×10 정책)에 ‘3대 필수대상’(보건시설, 복합형 문화 거점, 양곡관리 시설) 병행해 건설할 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정식 포함
- ‘새 시대 당 규율 건설 노선’ 관철 및 당 사업·활동의 재정·물질적 담보 성과 언급, 당 검사위원회들의 편향적 문제들 엄정하게 지적

■ 경제 부문

- ‘5개년 계획 관련 ‘12개 중요고지’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수치 제시
- 기간 공업부문(금속, 화학, 전력, 기계, 석탄, 철도운수 등) 점령 목표 명시
- 경제전반 통일적 관리 체계·방법, 계획화 사업, 가격사업 개선 등 강조
- ▲건설(2025년 건설 목표, 지방건설, 재해방지사업 지휘체계 수립) ▲농업(알곡고지 점령, 농업 생산량 증대) ▲경공업(기초식품·필수소비품 질 개선, 어린이·학생 대상 사회주의적 시책 책임적 집행) ▲수산(물질적 토대 강화) 각 부문 성과 평가 및 과업 제시

■ 사회문화 부문

- 보건(치료 예방사업,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 질제고, 방역토대 강화)
- 문학예술·출판보도·체육 등 분야 성과 언급
- 교육토대 강화 조치: 교육 인프라, 교육의 질, 도농 교육 격차 완화 등 전반적인 교육 토대 현대화 강조

북한

- 11.29. 김정은, 러 국방상 만나 담화: “북러 합의 따라 정치·경제·군사 분야 확대발전” (11.30.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상 방북이 북러 간 “군대들사이의 친선 및 호상협조, 관계발전을 추동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 언급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대한 대응타격을 지지
- 11.29. 북-러 국방상 회담 “북러 군대 전투적단결·전략전술적협동 강화” (11.30.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2.1. 최룡해, 함경남도 여러 부문 사업(식품, 기계, 농업, 축산, 교육 등) 현지요해 보도 (12.1.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2.4. 김덕훈, 금성트랙터공장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요해 보도 (12.4.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2.10.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및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등 현지요해 보도 (12.10.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2.11.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한국 ‘비상계엄사태’ 관련 첫 보도 “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 12.19. 외무성 대변인 담화, “주권국가 합법적권리 수호행사 제한 두지 않을 것” (12.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G7 및 한국, 호주, 뉴질랜드, EU 등의 러북 군사협력 규탄‘공동성명’ 발표에 ‘내정 불간섭 국제법적원칙 유린’이라며 반발
 - 러-우 전쟁 장기화와 세계 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미국과 서방에 돌리고,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권리를 철저히 수호하고 그를 행사하는데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을것”이라 주장
- 12.20. 김정은, 성천군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연설 ‘지방발전 20×10 정책’ 첫 해 성과 “지방인민들에게 항상 송구했던 마음도 다소 풀려” (12.21.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은 지난 시기 지방공업정책과 사회주의농촌테제가 결실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올바른 국가적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후과라고 비판
 -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집행이 당중앙위원회의가 직접 지휘하는 당적·국가적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사업임을 강조하며, 정책적 과업들의 완전무결한 집행과 매해 성과를 내놓을 것을 지시(“해가 바뀔 때마다 20개 시, 군이 변하는 위대한 년대는 어김없이 무조건 계속 이어져야”)

- 12.21. 김정은,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 참석·연설 “다시한번 자생자결의 정신을 배양할수 있는 계기” (12.22.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은 130여 일간의 피해복구건설은 지역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떠올린 자랑찬 결과라고 총화하고, “당결정으로 채택한 완공기일을 거둬 미루어 추위가 닥쳐든 연말에 와서야 완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 정말 미안할뿐”이라고 발언
 - 국제사회가 수해 복구 자원외사를 표명했으나 자력에 의거하는 문제처리방식을 피력했다며, “다시한번 자생자결의 정신을 배양할수 있는 계기”였다고 언급

미국 / 일본

- 美日, '中과 영유권 분쟁' 필리핀과 남중국해 합동 훈련 (연합뉴스, 12.6)
- 트럼프, 미국 나토 탈퇴 가능성 또 시사 (연합뉴스TV, 12.8)
- 美 “깜 부근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첫 성공” (KBS, 12.11)
- 美하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처리 (MBC, 12.12)
- 트럼프, 북한 담당 특별 임무 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 (KBS, 12.15)
- ‘한국 자체 핵무장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 지명 (한겨레, 12.23)
- 이시바 총리 방한 연기할 듯... 한일협력 “셔틀 외교” 타격 우려 (KBS, 12.4)
- 日, 탄핵정국에 對韓 외교 고심... “셔틀 외교 등 당분간 중단” (연합뉴스, 12.10)
- 이시바 “납북자 문제 해결 위해 김정은과 회담 필요” (YTN, 12.12)

중국 / 러시아

- **중국, 韓 탄핵정국 주목...한중관계 영향 예의주시(아시아경제, 12.07)**
- 한국의 리더십 변화 가능성이 중국에 미칠 영향 고려
- **美, 추가 제재로 中 반도체 단기 타격...“3~5년 공급 부족”(조선일보, 12.07)**
- 美,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24종 대중국 수출 제한, 중국 반도체 개발 역풍
- **‘트럼프2기 대비’ 중국, 내년에도 재정 확대 방침(한국일보, 12.12)**
- 중국경제공작회의 적극재정,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예고
- 시 주석, “미중 협력 모색해야” 강조
- **美, 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관세 50%, 2배 수준 인상(OBS, 12.12)**
-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관세 인상
-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중요성 재확인”(대전일보, 12.12)**
- ‘제28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공급망 관리, 무역·투자 활성화 등 양국의 안정적 경제협력방향 논의
- **다이빙 신임 中 대사 이번주 부임 (중앙일보, 12.23)**
-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 금주 내 27일 전후 부임 예정
- **러시아, 트럼프 브릭스 100% 관세 발언에 “그러다 역효과”(아시아경제, 12.02)**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브릭스(BRICS)국가들을 향해 달러를 버리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경고
- **“북한, 러에 장사정포 포함 포격시스템 100대 제공”(경향, 12.02)**
- 우크라이나, 북한이 러시아에 최신 240mm 다연장로켓포(방사포) 포함 주력 포격시스템 100대 지원 주장
- **푸틴, “러 국영 네이지 기업 로스네프트, 인도에 28조원 투자” (뉴스핌, 12.06)**
- 푸틴, 인도는 전략적 파트너이며 원유 생산·정유·원유제품 거래에 있어 인도 기업들과 협력 언급.
푸틴, 내년 초 인도 방문 예정.
- **러시아 사용 북한제 미사일, 폭발력 강력해 위협적(뉴스핌, 12.06)**
-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확도는 낮지만 폭발력이 높아 위협적
- **북한이 먼저 파병 제안...푸틴, 즉각 수용(데일리안, 12.24)**
- 미 정보당국은 이번 파병이 북한이 먼저 제안, 푸틴의 즉각 수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학술 교류협정 체결 (2024. 12. 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2월 3일(화) 10:30 대회의실(평화관 1층)에서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에는 귀리안치양(郭連)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장리나(張麗娜) 경제연구소장, 런도(任道) 대외협력처 부처장, 위치오스(於秋時) 싱크탱크기금연구원, 판판(範凡) 조선한국연구소 연구원, 티안전싱(田振興) 연구원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상만 중국연구센터장, 조진구 일본연구센터장, 이형중 기획홍보실장, 최영준 국제협력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관세 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반도 상황과 미중관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긴 역사와 권위를 갖고 있는 길림성 사회과학원과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문제 및 동북아 국제정세 등을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귀리안치양 부원장은 그동안 사회과학원이 한중관계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며, 50년 역사와 권위를 갖고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협력하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산하 15개의 연구소 및 3개의 연구센터와 300여명의 연구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및 북중러관계, 동북아지역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 동북 3성의 대표적 연구기관임.



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중국 상해 외국어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12. 20. 서면 협정 체결)

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변동사항

- 최은석 초빙연구위원 (2024.12.13. ~ 2025.12.12.) / 現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교수

2. 언론 속의 IFES

가. 『제13차 삼청포럼』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4. 12. 12.)

CNB뉴스, 아시아경제, 경남에나뉴스, 한국공보뉴스, 교수신문, 대학저널 등 9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13차 삼청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13차 삼청포럼 개최”



< 제13차 삼청포럼 개최 >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아시아경제) 송종구 기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10일 오후 7시 통일관 정산홀에서 제13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의 싱크탱크 스티imson센터(Stimson Center) 선임연구원인 제니 타운(Jenny Town) 38노스(38 North) 디렉터를 초청,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Landscape around North Korea)”에 관한 주제로 발표·토론을 가졌다.

제니 타운 ‘38노스’ 디렉터는 포럼에서 “북한은 다극체제 형성과 서방의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와 군사기술 지원을 확보하면서도, 스스로를 ‘정상국가’로 포장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 언론 속의 IFES

나. 이관세 소장 경남대 통일미래최고위과정 특강 내용 언론보도 (2024. 12. 13.)

경남에나뉴스, 한국공보뉴스, 대학저널 등 9개 국내 언론사에서 『경남대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이관세 소장 초청 특강』 내용을 보도했다.

“경남대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초청 특강 가져”



< 경남대 통일미래최고위과정 특강 >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윤태영)은 지난 12일 오후 7시, 창조관 평화홀에서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을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이관세 소장은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국제질서 재편 속 한반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 배경,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 등 밀착, 트럼프 정부 대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다. 『제74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4. 12. 18.)

연합뉴스, 뉴스원, CNB뉴스, 경북신문, 뉴스프리존, 대학저널 등 13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74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에 방위비 증액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리스트 짜야”



< 제74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이에 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목록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오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연구소평화관에서 열린 '제74차 통일전략포럼'에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경우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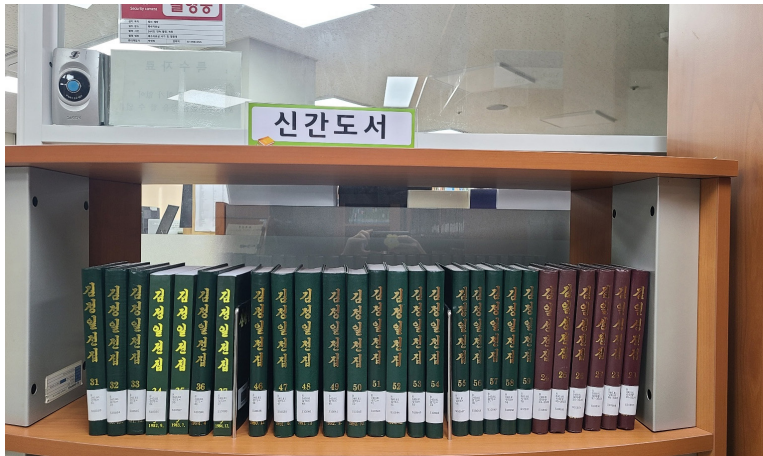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북미협상 추진 시 "핵 폐기를 전제로하지 않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책 조율 및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북협상이 추진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감소 등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북협상 본격화 전 한미 간 소통 및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 IFES 도서관

가. 신간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중 북한 김정일 전집 7권을 입수하였다.



<신간 도서 목록>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김정일 전집 31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20
김정일 전집 32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20
김정일 전집 33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21
김정일 전집 34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21
김정일 전집 35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21
김정일 전집 36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21
김정일 전집 37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21

나.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는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통일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12월 개방서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257권, 도서 나눔 240권

4.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